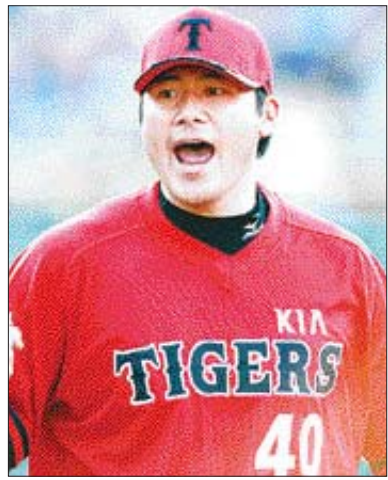


## ■ KIA 금주의 프로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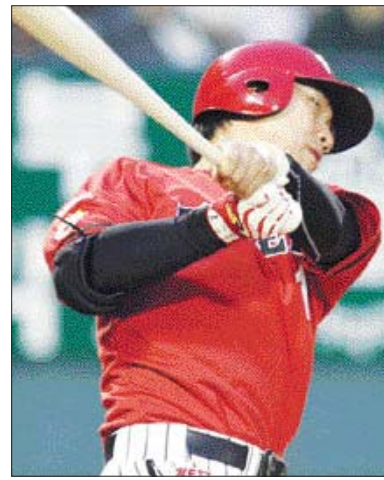
# 거물들이 돌아온다



서재응



최희섭



장성호

“KIA 중위권 진입에 날개를 달았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5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를 13-2로 제압하고 6위 자리에 입성했다.

이날 부상에서 복귀한 ‘스나이퍼’ 장성호는 24일간의 공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최연소 1천600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부진한 타선에 한 줄기 ‘단비’ 같은 장성호의 복귀로 공격에 숨통이 트인 KIA는 메이저리거 서재응과 최희섭도 합류를 앞두고 있어 중위권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KIA는 김성훈을 시작으로 장성호·최희섭·서재응이 줄줄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팀 운영에 골머리를 앓았다. ‘차포’(車包)를 떼고 경기를 하더니 ‘마’(馬)·‘상’(象)까지 떨어져 나갔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꾸준함의 상징 장성호는 타석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팀 공격의 포문을 여는 우전안타를 신고하며 견제를 과시했다. 지난 25일 경기에서 장성호에게 첫 안타를 허용한 ‘무기’ 정찬현은 이후 5개의 안타와 폭투까지 내주면서 6실점해 2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서재응과 최희섭의 가세는 ‘5월 대반격’을 마무리 짓는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최희섭은 지난 13일 허리 통증으

## ‘부상’ 장성호 복귀 이어 서재응·최희섭 곧 가세 중위권 진입 날개 달듯

로 2군으로 내려간 뒤 감기몸살까지 겹쳐 고생을 했지만, 컨디션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최희섭까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소총군단’ KIA의 타선에 ‘한방’의 위력이 더해져 한층 짜임새가 촘촘해지게 된다.

‘나이스 게이’ 서재응의 복귀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재응은 지난 16일 LG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통증을 호소하며 2군에 내려갔지만, 1군과 함께 이동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해왔다. 부상 부위가 지난 전지훈련에서 다쳤던 왼쪽 허벅지가 아닌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위기에 몰린 마운드 지원에 나서게 된다.

KIA는 서재응의 이탈과 함께 ‘깜짝스타’로 부상했던 이범석이 내리 2경기에서 부진하면서 윤석민-이대진을 제

### ◇프로야구 중간순위 (26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31	16	0	0.660	0.0	3패
2	두산	26	18	0	0.591	3.5	3승
3	롯데	25	20	0	0.556	5.0	5승
4	한화	25	24	0	0.510	7.0	1승
5	삼성	24	24	0	0.500	7.5	1패
6	KIA	20	28	0	0.417	11.5	2승
7	우리	19	28	0	0.404	12.0	4패
8	LG	19	31	0	0.380	13.5	2패

외하고는 확실한 선발이 없는 상황이다. 급한 대로 벌레 마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KIA에 서재응의 합류는 ‘천군만마’다.

이번 주 KIA는 1위 SK와의 홈경기과 2위 두산과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어 만만치 않은 한 주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3번타자 장성호가 돌아오면서 타선의 위력이 더해진다. 주말 2연전에서 28점을 뽑아내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고조됐다. 지난 7경기에서 10과 3분의 1이닝동안 0.0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동훈을 필두로 한 계투진도 한층 안정됐다.

4.5게임차로 4위 한화를 쫓고 있는 KIA에게 이번주는 ‘5월 대반격’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올스타 뽑아주세요”

인터넷·모바일 투표는

6월3일~7월20일까지

‘별들의 잔치’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베스트 10 인기투표’가 27일부터 전국 4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현장 투표는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이뤄지고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는 6월3일 오후 12시부터 7월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올스타전은 8월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다. 팬들은 야구장과 온라인에서 동군(SK·두산·삼성·롯데)과 서군(한화·KIA·우리·LG) 포지션별 올스타 10명씩을 선발할 수 있다.

동군을 지휘하는 김성근 SK 감독과 서군을 맡은 김인식 한화 감독은 각각 투표로 선정된 10명에 감독 추천 10명을 보태 20명으로 팀을 꾸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 투표수를 입장관중 1인1표를 원칙으로 구단별 10만매(구단당 총 18경기)로 제한했고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또한 1인 1회 1회 실명으로 하기로 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KIA(서군) 추천 선수

투수	윤석민
포수	차일목
1루수	장성호
2루수	김중국
3루수	이현근
유격수	발데스
외야수	김원섭
	이용규
	이중범
지명타자	최희섭

팬들은 8개 구단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선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삼성 간판 타자 양준혁(39)은 이만수 SK 코치가 보유 중인 12년 연속(1982~1993년) 팬투표 올스타 선발에 도전한다.

통산 13번째 올스타를 노리는 양준혁은 역대 최다인 네 차례 최다 득표 영광을 안았다.

KBO는 온라인 투표 참가자에게 매주 추첨을 통해 삼성 블루 디지털카메라와 닌텐도 Wii 등을 경품으로 준다.

또 현장 투표 참가자에게는 매 경기 후 추첨으로 올스타전 입장교환권을 증정한다.



볼 향한 집념

26일 전북 김제시 김제고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전국대학하키연맹전. 강원대 조용희(왼쪽)와 조선대 이기찬이 조선대 끝내 공을 뺏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조선대가 5-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KIA 투수 유동훈 등 46명

### 올림픽 야구 3차 엔트리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잠수함 투수 유동훈(31)과 SK 와이번스 내야수 나주환(24)이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엔트리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는 26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대표팀 엔트리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유동훈과 나주환을 포함한 4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투수가 21명이고 포수 3명, 내야수와 외야수는 각각 11명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2차 엔트리(66명)보다 20명 줄어든 숫자로 기술위원회는 6월30일 4차 회의 때 최종 엔트리(24명) 윤곽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7월23일이다. 유동훈은 잠수함 투수 보강 차원에서 유규민(LG) 대신 뽑혔다.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는 25인 로스터에 포함돼 정규 시즌 중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3차 엔트리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장정 또 준우승

### 美 린들리에 연장 역전패 시즌 세번째 '2인자' 설움

#### LPGA 코닝클래식

장정(28·기업은행·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 클래식과 악연을 펼쳐내지 못하며 시즌 세번째 준우승의 아쉬움을 감쌌다.

장정은 2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223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리타 린들리(미국)와 연장전을 벌여 무릎을 꿇었다.

4언더파 68타를 친 장정은 5타를 줄인 린들리와 같은 11언더파 277타로 4라운드를 모두 마친 뒤 16번홀(파4)에서 치른 첫번째 연장전에서 바다를 잡아낸 린들리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티샷을 왼쪽 라프트로 보낸 데 이어 두번째 샷은 범커에 빠트린 장정은 멋진 범커샷으로 가볍게 파를 지켰지만 린들리는 1.2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장정은 2년 전 3타차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7위로 밀려났던 악몽이 되살아난 뼈아픈 역전



패였다. 지금까지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한 네차례 대회에서 두차례 역전패가 모두 코닝클래식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장정은 필즈오픈과 미켈롭몰트라오픈에 이어 올해에만 세차례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은 더했다.

이날까지 세번 치른 연장전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해 뒷심 부족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김미현(31·KTF)과 유선영(22·휴온스)이 공동3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고 공동6위(7언더파 281타) 김승희(20·힐라코리아), 공동8위(6언더파 282타) 한희원(30·힐라코리아) 등 ‘톱10’ 10명 가운데 절반을 한국 선수가 휩쓸었다는 사실이다.

## 함평다이내스티 가는 길 훨씬 빨라진다

광주~무안 고속도 완전 개통  
종전 1시간에서 30분 단축  
고속도 통행료 환율 서비스도



28일 완전 개통되는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 톨게이트를 이용하면 광주에서 함평다이내스티CC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어 내장객들의 왕래가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계절 양산의 골프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함평다이내스티CC가 28일 광주~무안고속도로로 완전 개통으로 광주에서 30분대에 닿을 수 있게 됐다.

광주와 무안 국제공항을 잇는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그동안 광주에서 함평다이내스티CC를 이용하는 내장객들의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절반인 30여 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함평다이내스티C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서구 관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목포간 국도를 이용할 경우 1시간여가 소요됐으나 새로 개통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출발 무진로를 통해 동함평IC까지 규정속도(100km/h)로 시주해 본 결과 20여 분이 소요되고,

동함평IC에서 함평다이내스티CC까지 10분이 걸려 3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광주~목포 간 국도는 그동안 출·퇴근 차량이 많아 함평다이내스티CC 내장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으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교통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

특히 함평다이내스티CC는 내장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광주~무안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골프장 프린트에 제시하면 왕복 통행료를 환불해 준다고 시주해 본 결과 20여 분이 소요되고,

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 동함평IC에서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한 후 영수증을 함평다이내스티CC 프린트에 제출하면 왕복 통행료 요금을 환불받게 된다.

이준희 함평다이내스티CC 대표는 “그동안 함평다이내스티CC가 광주에서 근접성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됐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골프장이 부담, 내장객을 주인으로 모시는 전국 최고의 명문골프장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lion@kwangju.co.kr